

#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개발' 우수과제 선정

### 농진청, 가뭄에 강한 강낭콩 신종 3종 개발·등록... 중남미 3개국 공동

농촌진흥청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약체(콜파시, KdFAO)의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가 국제개발협력 우수과제로 인정받았다.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는 농촌진흥청과 중남미 13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협력체로 중남미 농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 맞춤형 기술을 전파하는 개발 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날 29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평가전문위원회에서 올해 정부 부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평가한 결과,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가 기후변화 적응 식량 분야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약체(KolFAO)의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가 국제개발협력 우수과제로 인정받았다.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는 농업용수 절약 효과와 강낭콩 생산량 증가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생계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낭콩은 단백질 비티민 비(B), 철분, 아연이 풍부한 중남미 국가의 주식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면서 중남미 지역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강낭콩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업인들이 관개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약체는 국제열대농업센터(CIAT)와 협력해 강낭콩 유전자원(누적 1,579 계통)을 중남미에 지원했다. 아울러 각 나라에 적합한 우수 유전자원을 선발해 품종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건조한 기후에 강한 'URAN' 품종(코스타리카), 'INTAM' 품종(니카라과), 'CENTA-Seqúia' (엘살바도르) 품종을 새로 등록해 중남미 농업인에게 전파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경태 국제기술협력과장은 "강낭콩은 중남미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작물인 만큼 우수품종 개발,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농업 분야 국제 기술협력을 지속해 현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돕고, 나아가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지난 15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지역 내 교육소외 학생들을 위해 익산교육지원청, 월드비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지역아동 꿈 실현 '힘보탠다'

### 하림-익산교육청-월드비전, 협약 체결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지난 15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지역 내 교육소외 학생들을 위해 익산교육지원청, 월드비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자원을 강화하는데 함께 뜻을 모았다. 각 기관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일에 상호 협력해 시너지를 한층 더 강화해 갈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호석 (주)하림 대표이사과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혁 월드비전 전북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아침밥(아침조식지원, 위기아동지원) △꿈지원(꿈지원사업, 꿈날개클럽) △인성

교육(인성교육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인성탐구생활, 희망캠페인) △나눔실천(나눔실천을 위한 지구촌 희망엽서그리기 캠페인, 글로벌 친구 맺기) 총 4가지 카테고리 상호 협력해 추진 계획이다.

하림은 아침밥과 조식지원사업비와 후원 물품에 사용될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월드비전이 담당하게 된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월드비전과 학교가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정호석 대표이사는 "성장기 아이들이 꿈을 실현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첫 공식 행보로 완주산업단지 방문

지난 14일 취임식을 가진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이 취임 후 첫 공식행보로 완주산업단지를 찾았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에서 완주산업단지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지역 기업들과 전주상의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경영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정태 회장은 "완주산업단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산업

단지의 심장부로서 주력산업인 자동차, 화학업종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미래 100년 먹거리인 수소산업 특화단지로서 전북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전북 경제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완주산업단지 기업들이 더욱 분발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전주상공회의소도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애로해소를 통해 왕성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지난 14일 취임식을 가진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이 취임 후 첫 공식행보로 완주산업단지를 찾았다.

## 전북중기청,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 추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웅)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15일부터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

는 방법이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현물 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에게 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를 통해 상품 홍보,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담보부족, 낮은 신용등급,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

출형 1,350개사, 후원형 400개사, 증권형 50개사 등 총 1,800여개사를 6개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펀딩만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소공인 집적지구 등을 대상으로 '상권형 동네펀딩'을 신규로 도입한다.

상권형 동네펀딩에 참여하는 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홍보도 함께 진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김옥기 기자

## 건협 전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등 개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4일 전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및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유의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회원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대응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범무법인 윤춘)과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와 평가방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소재철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 현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어 안전보



대한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는 지난 14일 전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및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유의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건무 확보를 위한 대처가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데, 이번 교육이 회원사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